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기술산업 현황

□ 정보통신기술산업 항목별 평가

항목별	평가 ^{주]}
Information Infrastructure	2.8
Internet Availability	2.8
Internet Affordability	2.0
Network Speed & Quality	3.0
Hardware & Software	3.0
Service & Support	2.5
School's Access to ICT	1.5
Enhancing Education with ICTs	1.5
Developing the ICT workforce	3.0
People and Organization Online	2.0
Locally Relevant Content	3.0
ICTs in every life	1.0
ICTs in the Workplace	1.0
ICT Employment Opportunities	2.5
B2C E-Commence	2.0
B2B E-Commence	1.0
E - Government	1.3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2.0
ICT Trade Policy	1.2

주] : 최하 1, 최고 4

자료 : Havard Univ. & IBM, Readiness for the Network World

□ 정보통신 인프라 현황

◇ 인프라구축 진행현황 및 주요 사업자

- 타슈켄트, 누크스 등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고속 데이터 통신라인 설치. 부하라, 나보이, 신다라, 카라칼팍스탄공화국 등 지역에 통신 현대화작업 진행중(40%가 디지털임)
- 우즈베키스탄 전체적으로 200개의 통신 channel 기지(32% 이상이 디지털)가 있으며, 통신라인의 길이는 670Km, 통신속도는 최대 155/622Mbps임
- 국영 UzPAK과 UzNet network이 주요 통신기업인 바, UzPAK은 phone network "Iska-2"와 데이터 transfer network망을 갖추고 있음. 국제전화는 국영 UzbekTelecom이 독점
- 전화 보유대수는 2001년 말 현재 인구 100명당 6.9대 수준이며, 타슈켄트는 평균 25대임
- 무선통신 사업자는 모두 7개로 그중 2개 업체는 DAMPS 방식, 4개 업체는 GSM방식, 1개 업체만이 CDMA방식을 채택
 - 무선통신 가능범위는 우즈베키스탄 전체지역 중 75% 정도, 무선통신을 이용한 인터넷 연결은 아직 불가능
 - 핸드폰 사용자수는 2001년 말 현재 약 127천명으로 인구 100명당 0.5대 수준

◇ 인터넷 이용 현황

- 2001년 6월말 현재 통신사업자수는 44개(1998년 17개, 1999년 25개, 2000년 32개)

- UzPAK이 국제네트워크 접속을 독점하고 있으며, 여타 업체들은 UzPAK으로부터 인터넷채널을 임차하여 사용
- 인터넷 접속서비스 외에 dial-up, leased line connections, e-mail, DNS 서비스 등도 제공하나, ISDN 및 DSL 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음성전송서비스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인터넷 이용요금은 시간당 800~1,400 Som(US\$1.2~2.0 수준)으로 비교적 높음 편임
- 최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장비와 광섬유 채널이 확충됨에 따라 인터넷망이 점차 개선
 - o 시내통화는 평균 1.62회 시도, 시외·국제통화는 2.3회 이상 시도시 통화가능하며, dial-up connection을 통한 인터넷 접속도 30% 만이 첫 번째 시도에서, 61%가 2.3회, 9%가 4회 이상 시도한 경우에 연결

◇ Hardware 및 Software 시장 현황

- Hardware 및 Software의 시장규모는 약 30~40백만달러 수준으로 추정
- PC 보유대수는 2001년 7월 현재 20만대 수준(인구 100명당 0.8대)으로 매년 2만 ~ 2.5만대 증가되고 있으나, 소득수준이 낮아 PC 구매력은 여전히 낮음
 - o 민간부문 기준으로는 전국적으로 인구 1,000명당 3대의 PC를 보유하고 있으며, 타슈켄트에서는 인구 1,000명당 25대 보유

- 참고로, 교육기관에 대한 PC보급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9,665개 초·중·고등학교 중 약 절반정도에 컴퓨터교실이 운영되어 약 42%가 구소련의 구식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있으며, Pentium급 컴퓨터 설치학교는 1.2%, 386/486 PC 설치학교는 7%에 불과
- 선호 PC는 DELL, IBM, HP, COMPAQ 등이나, 구입여력 부족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델은 Celeron 700~800 MHZ임. 15인치 모니터의 경우에는 한국 삼성과 LG가 45%, 15% 시장점유
- PC 주변기기의 국내생산은 거의 없고 대부분 러시아 및 UAE산 부품을 수입·조립
- Software 부문도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시장규모는 5~10백만달러로 추정
 - 60여개의 Software 개발회사가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여 수요의 50%를 수입에 의존. 국내에서 개발된 Software는 주로 은행, 회계, 급여계산 등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업무에 사용
 - Software 개발에 종사하는 인력은 1,400명 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고 인건비는 낮은 편임

◇ 향후 시장 전망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1세기 국가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법적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위해 정책적 배려와 지원 계획
 - 정보통신기술부문 발전 프로그램 제정(법령 230호)
 - 정보통신망 현대화 프로그램 선정
 - UzbekTelecom 민영화 계획

- 정보기술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낮은 구매력, 인터넷 이용자의 주요도시 편중 및 접근성 애로 등이 시장확대에 걸림돌

- 이 외에 정보통신부문 발전의 제약요인은 다음과 같음
 - o UzbekTelecom의 국제전화망 독점 및 UzPAK의 인터넷 국제접속 채널 독점

 - o 수입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높은 세부담 → 높은 국내 매매가격으로 구매력을 더욱 저하시키는 요인
 - 수입시 수입관세 등 관련비용이 수입원가의 50% 수준

 - o 전자상거래, 전자서명 인증제도, 사이버범죄 차단 등과 관련한 법적 인프라 구축 미비 → 전자상거래 부진

<우즈베키스탄 주재원>